

테마칼럼

문화·예술·관광

대안·리뷰·칼럼

광고·출판·잡지

정보·문화·세상

e-세상의 예향



이상길

“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이 첨단영상·CGI기술인데 광주는 일찌감치 제작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e-세상에서도 예향 광주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곧 오리라'-그 기대에 가슴이 뚫히듯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서 멀지 않은 프랑스 남동부 지방의 소도시-양시는 인구 5만에 불과한 조그마한 곳이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호수와 알프스 산맥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프랑스인들이 가고 싶은 휴양지 1, 2위로 뽑는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깨끗한 물로 채워진 호수를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 브랜드인 에비앙이 이 근교의 지명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면 그도 그럴법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도 물이 맑아 이 지역주민들은 양시호수 물은 그대로 먹어도 된다고 외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곤 한다. 이 양시에 유명한 것이 또 있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다. 이 페스티벌은 1956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지속해 왔는데 자그레브, 히로시마, 오타와와 더불어 세계 4대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양시의 주요 산업은 스위스와 비슷하게 금속가공, 합성섬유, 비료, 관광 등이었으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관광산업진흥의 차원에서 시작해 왔다. 올해는 63개국 1131개 회사가 참가해서 성황을 이뤘는데 애니메이션감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출판사, 국제미디어 방송사,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기관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다채로웠다. 양시 페스티벌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작가들도 많이 참여해 왔고 '마리아 이야기'와 '오세암' 등 한국애니메이션이 2002년과 2004년 장편부문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과시한 바 있다. 주로 예술지향적인 페스티벌-축제, 영상경연-이었던 이곳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

까지는 행사의 주관을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3년 전부터는 양시페스티벌을 본격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산업적인 육성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관의 명칭은 이마지노브(Imaginove),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지 산업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광주가 육성하려는 문화산업 5대 콘텐츠(음악/공예·디자인/게임/첨단영상/에듀테인먼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들이 페스티벌과 더불어 이미지 산업진흥에 역점을 두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현안해결이다. 예술지향적인 페스티벌의 경우 참가자는 대부분 애니메이션 감독이나 학생들로서 그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은 나머지 3개 페스티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굳이 양시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양시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둘째는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이다. 문화산업은 무공해 산업이며 게다가 부가가치까지 높은 산업이다. 생산유발, 경제영향력, 고용 유발 등 여러 면에서 제조업의 장점을 추월한다. 일례로 게임은 자동차를 팔 때 생기는 이익의 3배가 넘는다고 고용유발 효과도 농림수산업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평균 고용증가율이 2.16%일 때 제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쳐 -0.02%인데도 문화산업은 7.86%의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 광주시역만 해도 문화산업업체의 고용증가율은 2008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7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양시는 예술 편향을 탈피 문화산업을 키우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번 양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프랑스의 이마지노브는 첨단영상분야의 공동제작 및 개발, 비즈니스 공동 상담회 개최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이 프랑스 에이전시사와는 배급계약, 아미프사와는 공동제작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른바 e-세상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단말기, 통신 인프라, 콘텐츠다. 휴대폰 등의 단말기와 인터넷과 무선 통신으로 대표되는 통신 인프라는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우리나라는 e-세상의 슈퍼 파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의 핵심기술이 첨단영상 또는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기술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일찌감치 이미 이 중요성을 간파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지원사업과 더불어 CGI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광주의 업체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제 e-세상에서도 예향 광주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곧 오리라'-그 기대에 가슴이 뚫히듯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젠 지방 봉사단체까지 낙하산 인사인가

지방의 순수 봉사단체까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관례는 참관인사분야의 공동제작 및 개발, 비즈니스 공동 상담회 개최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이 프랑스 에이전시사와는 배급계약, 아미프사와는 공동제작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른바 e-세상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단말기, 통신 인프라, 콘텐츠다. 휴대폰 등의 단말기와 인터넷과 무선 통신으로 대표되는 통신 인프라는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우리나라는 e-세상의 슈퍼 파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의 핵심기술이 첨단영상 또는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기술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일찌감치 이미 이 중요성을 간파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지원사업과 더불어 CGI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광주의 업체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제 e-세상에서도 예향 광주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곧 오리라'-그 기대에 가슴이 뚫히듯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시급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에어컨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올 여름 '찜통고실'에서 공부해야 할 형편이다. 이유는 일선 학교로서는 감당하기 벅한 전기료 부담 때문이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105곳,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다. 이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65곳을 포함하면 광주지역 282개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매월 학교당 50만~80만원에 이르는 추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각 학교들은 공공요금의 구분없이 '표준 운영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 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타 명목으로 책정된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고압 A 선전 2 기종 kWh/5천 200원)'은 '산업용 전기요금(5천 110원)'보다 약간 높다. 실제로 연 2억 1천 400여만원의 표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광주 A고교의 경우 공공요금 7천 900만원 가운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에어컨이 '장식용'으로 전락한다는 건 예산비나 다름없다. 에어컨이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력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은 시급하다.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학생들이 찜통고실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는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홍숙현



'힘들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누구나 한 번씩 혹은 요즘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다. 힘이 든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 우리는 흔히 그 위로 방법을 찾는다. 술로, 담배로, 게임으로, 쇼핑으로, TV 드라마로, 아주 웃기는 오락프로그램... 그 무게를 좀 덜 수 있는 무엇인가로 빠져들어 현실의 그 무게를 잊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형태로든 삶의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때

무게로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다르다.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도 된다. 그 위로방법의 대부분은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독하면 떠오르는 것은 몰입!! 중독과 몰입의 차이, 종이 한 장일 것 같지만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난다. 중독은 더 이상 일상생활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으나 몰입은 모든 일(사업, 공부, 득도(得道))에 열중 나게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어딘가에 몰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하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까? 첨단장비를 이용해 몰입한 사람의 뇌 변화를 측정할 결과 정신, 감정 등 뇌의 작정사령부인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한 바도 있

기고

김창준



드디어 광주에서 세계 3대 스포츠 제전 중 하나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 꿈이 이루어졌다. 지난 5월 24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주 코리아'라는 발표에 광주시민 환호의 함성이 가득했다. 작년 2013 하계 U-대회 실패 이후 무모한 도전이라며 U-대회 실재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모두 한 번에 날려버린 낭보였기 때문이다. 2015 하계 U-대회 유치를 신청한 캐나다 에드먼턴과 대만 타이페이와 같은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광주 생활체육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규격의 신규 경기장 건축과 기존 체육시설의 개보수로 시민들이 생활체육 시설을 가까이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전국 생활체육 대회들이 광주에서 개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 하계 U-대회 유치 후 국제 경기대회 운영능력 제고로 향후 아시안게임 등 유치 기반이 마련돼 생활체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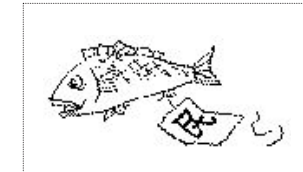
글로벌 생활체육 도시로 도약

팽쟁한 나라를 뒤로 하고 한국의 도시 광주가 선정 된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특히 관광도시로서의 명성과 도시경쟁력을 갖춘 두 도시를 제치고 세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절친한 패인 분석과 정부의 지원, 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비전이 큰 작용을 했겠지만 그 보다는 145만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유치 열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광주에서 2015년이면 세계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세계 대학인들의 스포츠 제전이 열린다. '최고를 향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유치 성공으로 광주는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스포츠 인프라와 도시기반 시설 구축으로 발생되는 경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비를 마치고 나면

無等鼓

민어는 생선 중 유일하게 백성 민(民)자를 쓴다. 예부터 그만큼 백성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다. 이승의 진(眞) 맛을 저승에서 맛보라고 제사상에도 올린다. 민어는 산란기인 여름을 앞두고 하얗게 기름이 오르는 6월부터 제맛이 난다. 민어는 조선시대만 해도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로 쳤다. '민어탕이 일품(一品), 도미탕이 이품(二品), 보신탄이 삼품(三品)'이란 말이 있었을 정도다. 풍채도 당당하다. 몸길이가 70cm부터 크기는 1m가 넘는다. 10kg이 넘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 민어는 크기 때문에 참치처럼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 배발이는 기름지고 고소하며 쫄귀해진 요즘, 민어 율음의 기억은 옛날이 되었다. 민어가 귀해지면서 값이 만만치 않다. 국민 물고기로 각광받던 민어가 서민들에게는 쉽게 맛보지 못하는 물고기 되었다. 한니씩 잃어져 가는 그 맛의 추억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민어



벽걸이 TV 이전 설치 요금 너무 비싸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던 중 벽걸이 TV를 떼내 새집으로 옮기면서 이사 업체에 재설치를 부탁했는데 벽걸이 TV는 해당 업체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했다. 요즘은 포장이사하든 하든 못부터 아이를 침대 재설치, 세탁기 재설치, 에어컨 재설치까지 모두 다 서비스해주는 시대다. 그래서 내가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모두 다 이사업체에서 설치해 주는데 왜 벽걸이 TV는 못 해주냐고 묻자 벽걸이 TV는 설치 자격증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

남성 취객 성희롱, 여성 대리운전자들은 "괴로워"

매제의 실직 이후 여동생이 궁여지책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옛그제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다. 만취한 남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이 남자 승객이 성적 농담을 하면서 추근덕거리는 것이었다. 동생이 한 두번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결국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도중에 내려놓고 와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대리운전회사에서는 그 날자로 잡았다며 오빠인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